

【논 문】

## 초기 거란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 - 태조·태종시기(907~947)를 중심으로 -

유 빛 나\*

### 차례

- I. 머리말
- II. 9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변화와 거란의 건국
- III. 태조·태종대 대외관계와 그 추이
- IV. 태종대 거란의 국제적 위상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9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변화 양상을 통해 나타난 거란의 성장 과정을 연구한 논문이다. 거란의 왕권확립과정과 태조·태종대 대외관계의 추이에 주목하여 나타난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를 통해서 주변 세력들이 변화하는 대외양상을 통해 거란의 국제적 위상을 검토하였다.

거란 태조의 대외원정을 통해 서쪽으로는 回鶻路에 위치했던 세력들이 거란에 자주 조공을 바쳤다. 거란의 동쪽 또한 태조가 발해를 멸망시킨 이후에 동단국을 세우면서 발해 고토내 거란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태종은 대종원관계에 집중하여 후진의 석경당을 도운 대가로 燕雲16주를 할양받았다. 태종은 938년에 국호를 大遼로 바꿔 적극적으로 중국문물을 받아 들였고, 더불어 이원적 통치체제를 구축하였다. 태종은 석경당 사후 후진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3차례에 걸친 원정 끝에 후진을 멸망시키고, 잠시 화북 일대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태조·태종대 대내외적인 성장의 결과, 거란의 위상은 높아졌다.

특히 거란은 대중원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거란과 오대왕조의 주변 세력들이 점차 거란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오대왕조 뿐만 아니라 남쪽의 남당과 오월은 적극적으로 거란과의 연대를 꾀했고, 심지어 吳越은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태조·태종의 노력은 거란이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정복왕조로 나아가는 기틀이 되었다. 또한 당송변혁의 중심에 있었던 오대시대에 두 황제의 역할은 중원왕조의 패권의식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다원적 국제질서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주제어 : 契丹, 五代王朝, 契丹太祖, 契丹太宗, 다원적 국제질서, 後晉, 回鶻路

## I. 머리말

10세기 초 동아시아의 화두는 한족을 중심으로 했던 당의 몰락과 그와 함께 새롭게 동아시아 주역으로 성장한 정복왕조이다. 그 이전까지 漢族王朝은 스스로를 ‘華’로 인식하고 그 주변을 ‘夷’로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서 중국은 동아시아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영향력을 끼쳤다. 이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끊임없이 중국과 접촉하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하였다.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唐 현종대 일어났던 ‘安史의 난’으로, 당은 급격히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내부의 적보다도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외부 세력인 突厥·回鶻·吐蕃·契丹<sup>1)</sup> 등으로, 이들은 당과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유발하였고 당에게 위협이 되었다. 이중 거란은 초반에는 突厥·回鶻 등 혹은 당에 복속되었다가 차츰 주변부족을 통합하고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다져나갔다.

1) 契丹은 국호이자 동시에 민족이름이다. 거란은 916년 ‘大契丹’으로 국호를 삼았고, 938년에는 ‘大遼’로 삼았다. 983년 거란 聖宗대 다시 ‘대거란’으로 국호를 고쳤고, 마지막으로 1066년 도종 때 와서 다시 ‘대요’로 바꾸었다. 또한 거란문자로 기록된 문서에는 스스로를 ‘哈喇契丹’로 표기하였다. 여기서는 契丹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결국 907년에 거란 太祖(耶律阿保機)는 거란 부족을 통합하며 점차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후 태조는 주변의奚와 渤海를 복속하는 등 여러 차례 원정을 실시하였고, 거란 내부의 불안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거란제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거란 太宗(耶律德光)대에는 대중원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太原의 石敬瑭을 도와 後晉 건국에 참여하였다. 태종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석경당으로부터 燕雲十六州를 할양받으면서 지금의 北京과 大同일대를 장악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거란이 장성 안으로 진입하면서 중원의 장성방어체제가 무너졌다. 또한 태종은 漢人으로 대표되는 농경민과 거란인으로 대표되는 유목민을 구분하는 이원적 통치체제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석경당 사후 後晉이 거란에게 封表稱臣을 거부하자, 947년에는 후진을 멸망시켜 잠시 化북 전역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거란의 성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元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동아시아 질서가 ‘다원적 국제질서’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다.<sup>2)</sup> 그 중심에서 거란 초기 태조·태종의 역할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거란초기 국가의 성격과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漢人에 주목하여 이들이 거란 초기 발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연구가 있다.<sup>3)</sup> 두 번째는 거란 내에 한족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통치체제에 대한 연구도 있고,<sup>4)</sup> 세 번째는 거란 태조·태종의 대외확장과 관련해서 동·서방 경략에 관한 연구가 있다.<sup>5)</sup> 마지막

2) 윤영인, 2007, 「10-13세기 동북아시아 多元的 國際秩序에서의 冊封과 盟約」 『東洋史學研究』 101, 논문 참조.

3) 거란초기 한인 연구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과 단행본이 나와 있는데, 몇 개를 소개하자면 小川裕人, 1938, 「遼室君主權の成立に於ける一考察」 『東洋史研究』 3·4; 姚從吾, 1952, 「契丹漢化的分析」 『大陸雜誌』 4-4; 島田正郎, 1952, 『遼代社會史研究』, 三和書房; 서병국, 2006, 『거란제국사연구』, 한국학술정보; 최익주, 1978, 「요 태조·태종대의 한인관료」 『대구사학』 15; \_\_\_\_, 1981, 「요 초의 지배세력의 성격」 『대구사학』 19.

4) 津田左右吉, 1916, 「遼の制度の二重體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3; 島田正郎, 1979, 『遼朝官制の研究』, 創文社.

으로 거란 태조·태종대 전반적인 오대왕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다.<sup>6)</sup>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거란의 초기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되어, 거란의 변화 요인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많이 밝혀졌다. 하지만 거란의 성장에 대한 주변의 인식과 거란의 국제적 위상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중국의 연구성과는 1990년대 이전에는 한족 중심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내세워 거란 태조·태종의 역할을 통해 민족융합의 측면이 강조된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거란 초기 태조·태종의 대외적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 나타난 거란의 변화양상과 동아시아의 국제환경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거란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이 시기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 거란이 차지했던 역할과 그 위상이 조금은 드러날 것이라 기대한다.

## II. 9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변화와 거란의 건국

### 1. 당의 몰락과 구질서의 동요

8세기 동아시아에서 당은 맹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당의 일

- 
- 5) 松井等, 1915, 「契丹可敦城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 長澤和俊, 1957, 「遼の西北路經營について」, 『史學雜誌』 66-8; 長澤和俊, 1984, 「遼代回鶻路考」, 『中國正史の基礎的研究』, 早稻田大學出版部; 金毓黻·동북아역사재단 역, 2007, 『東北通史』 下, 동북아역사재단; 金渭顯a, 2004, 『契丹東方經略史研究』, 명지대학교 출판부.
- 6) 松井等, 1916, 「五代の世に於ける契丹(上)」,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3; 盧逮會, 1954, 「五代十國對遼的外交」, 『學術季刊』 3(1); 謝昭男, 1973, 「五代時期各國關涉契丹史事繫年」, 『遼史彙編』 5, 鼎文書局; 日野開三郎, 1980,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五代史の基調)』 2, 三一書房; 任崇岳, 1984, 「略論遼朝與五代的關係」, 『社會科學輯刊』 33期; 李永杓, 1986, 「五代와 契丹과의關係」, 成均館大學校 석사학위논문; 彭麗芬외 1인, 2007, 「五代時期契丹遼朝의 中原政策述論」, 『赤峰學院學報』 28-1.

원적인 지배체제는 당 태종을 거쳐 당 고종 대에 활발한 대외원정을 통해 완성되었고, 이러한 지배질서에 주목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다.<sup>7)</sup>

현종 開元(713~741)대에는 각 외국과 그에 맞는 화친외교를 추진하여 당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구축했다.<sup>8)</sup> 그러나 755년에 일어난 안녹산의 난을 계기로 율령체제가 붕괴되면서 주변에 대한 통치체제는 느슨해졌고, 결국 당은 다른 주변세력들을 끌어 들여 난을 진압하는데 치중하였다. 이를 통해 당은 주변의 통제력을 점차 상실하며 전과 같은 위상을 보일 수 없었다. 당시 唐代의 조공국의 수를 표로 정리해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당대 황제별 외국의 조공 횟수<sup>9)</sup>

황제	高祖	太宗	高宗	武則天	中宗	睿宗	玄宗
조공횟수	77	241	90	32	28	22	438
황제	肅宗	代宗	德宗	順宗	憲宗	穆宗	敬宗
조공횟수	19	129	48	1	70	18	12
황제	文宗	武宗	宣宗	懿宗	僖宗	昭宗	哀宗
조공횟수	61	11	1	1	0	0	0

조공과 여기 결부되는 의례가 황제권 강화의 중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공횟수는 왕조의 성쇠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당 전기에 조공횟수가 집중되었다는 것은 이 시기 당조가 세력을 널리 확대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종 대 안사의 난 이후 代宗을 제외하고 이전보다 조공횟수가 줄어들었고, 宣宗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7) 당대 국제질서의 연구사적 정리로는 金子修一, 2001, 「隋唐國際關係史研究の諸問題」,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참조.

8) 廉景伊, 2008, 「唐 玄宗代 使臣派遣과 그 外交的 役割」, 『中國史研究』 54, 논문 참조.

9) 최재영, 2009, 「唐代 長安의 朝貢使節의 변화와 鴻臚寺의 기능」, 『동북아역사논총』 24, 266쪽, <그림 1> 참조.

않는다. 이를 통해서 선종 이후 당 조정의 세력이 약해졌고, 대외관계에서도 그 위상이 악화되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sup>10)</sup>

당은 큰 변란을 겪으면서 외지에만 있었던 節度使를 전국 각지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江南과 長安 주변의 절도사들만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을 뿐, 河北路에 있었던 절도사들은 조정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藩鎮支配體制를 구축하였다. 특히 ‘河北三鎮’이라 불리는 강한 세력이 당 정부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환관의 跋扈와 대신들의 당쟁이 격화되었고, 이러한 당 내부의 모순으로 이후 여러 차례 반란이 발생하였다. 지방의 절도사들은 번진지배체제를 강화하고 당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서, 당은 완전히 지방장권으로 전락하였다.<sup>11)</sup>

이처럼 당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는 등 여러 모순이 작용하여 당은 점차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결국 朱全忠이 선양의 형식을 통해 제위를 찬탈하면서 3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당도 멸망하고 말았다. 이후 여러 개의 분열국가가 등장하였는데, 歷史上 이를 ‘五代十國’(이하 五代)이라고 부른다. 즉 북쪽에는 後梁·後唐·後晉·後漢·後周가 있었고, 남쪽에는 지방 할거정권 세력인 10국<sup>12)</sup>이 병존하였다.

이 당시 거란은 咸通(860~873) 말년에 契爾(巴剌可汗) 대에 이르러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 欽德이 可汗이 되어 중원의 많은 변고를 틈타서 때때로 변경에 진출하였다.<sup>13)</sup> 흠덕은 『遼史』에서 나오는 痕德董可汗으로 태조를 夷離董에 임명하여 주변 세력 확장에 큰 힘을 쏟았다. 이후 태조는 于越의 지위에 올라 국가의 모든 군국사를 장악했고, 흠덕을 대신해서 可汗으로 선출되었다.

태조는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선거제를 폐지하고, 諸部를 통합하여 迭剌部 중심의 권력계승을 이끌어냈다. 또한 당시 남쪽 盧龍軍의 劉仁恭과 河東

10) 최재영, 2009, 앞의 논문, 266~267쪽.

11) 임대회 외 4인, 2005, 『세미나 수당오대사』, 서경문화사, 332~333쪽.

12) 北漢은 10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북쪽(河東일대)에 위치하였다.

13) 『資治通鑑』 권266, 太祖 開平元年, 五月.

節度使 李存勳의 잦은 충돌 때문에 혼란과 폭정을 견디지 못한 幽州와 山西 일대의 사람들이 거란으로 넘어오는 사건이 속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태조는 중국 북부에 진출하여 한인을 포로로 잡아 거란 내지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것은 거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sup>14)</sup>

이와 같이 거란이 성장하게 된 것은 동아시아의 절대강자였던 당의 붕괴와 거란의 세력을 위협하였던 주변 세력들의 몰락으로 거란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환경이 조성되면서 중국은 송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列國으로 나뉜 혼란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반면 거란은 내부 세력의 결속을 통해 왕권을 확립하였고, 점차 신흥세력으로 성장해 갔다.

## 2. 거란의 건국과 왕권의 확립

통일에 성공한 태조는 전통의 방식에 따라 단을 쌓고, 柴册儀를 거행하면서 즉위하였다.<sup>15)</sup> 그러나 당시의 태조의 즉위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다. 특히 거란의 사서인 『遼史』와 중국의 여러 사료들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A : (906년) 12월에 痕德董可汗이 죽고, 군신들은 (가한의) 遺命을 받들어 태조 세우기를 청했다. 갈로 등이 나아가서 권했고, 태조는 3번이나 양보했으나, (결국) 이를 따랐다. 원년 춘정월 경인일에 有司에게 명해 如迂王集會塢에 단을 쌓고, 뿔나무를 태워 하늘에 고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sup>16)</sup>

14) 金渭顯은 거란이 건국전부터 漢人俘虜와 降附者들을 받아들여 대부분 농업에 종사시켰고, 일부는 숙련의 기술공들도 존재하여 기술을 전수 해주는 등, 거란초기부터 산업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한다.(金渭顯, 2004, 『契丹文化史論』, 景仁文化社, 185~197쪽)

15) ‘柴册儀’는 거란의 전통적인 祭儀로 정치적 집회에 앞서서 이루어진 임시의 神事이다. 除外征·掠奪·集團狩獵 등의 大事를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選舉 제도를 통해 可汗을 뽑을 때에는 차기 可汗을 선출하였고, 이것을 추대하는 집회로서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이는 일종의 몽골의 ‘쿠릴타이’와 비슷하였다. 이후에는 ‘柴册儀’를 가지고 天子가 尊號를 받기 위한 典禮로 변하였다. 그러나 후에 漢儀로서 ‘皇帝受册儀’의 典禮가 세워지자, 柴册儀는 본래 모습으로 환원되었다.(島田正郎, 1979, 앞의 책, 334~335쪽)

16) 『遼史』 권1, 太祖本紀上, 太祖元年 正月.

B : 아보기가 왕(可汗)이 되어, (중략) 태조가 황두실위를 격파하고 돌아오자, 7부가 境上에서 아보기를 협박하면서, 이전과 같이 약속하기를 구했다. 태조는 부득이하게, 旗鼓를 전하며 말하기를 “내가 왕(可汗)이 된지 9년으로 漢人을 많이 얻었는데, 바라건대 種落을 이끌고 예전의 漢城에 거하며 漢人과 더불어 지키고, 스스로 一部가 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모든 부에서 허락하였다. 그 후에 태조가 7부를 공격해서 멸망시켜, 하나로 병탄했다.<sup>17)</sup>

당시 『요사』를 제외한 사료들은 모두 대동소이하게 태조가 7부의 반대를 제압하고, 거란可汗으로 즉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8)</sup> 반면에 『요사』에는 태조의 부족 통합과정을 흠덕의 유명을 받들어 대신들의 추대형식을 통해서 태조가 새로운 可汗으로 즉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요사』의 찬자는 태조가 可汗이 되기 위해서 자행했던 7부대인 살해 사건은 은폐하고, 대신들의 추대형식을 통한 정상적인 왕위계승을 강조하였다.

태조 즉위 당시 거란의 상황은 “이때에 (국가의) 제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았고 국가의 재정도 충분치 않았으며, 자신의 친위세력도 아직은 없었다. 그래서 諸弟 刺葛 등은 때때로 들어 줄 수 없는 것을 바랬다”<sup>19)</sup>는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이처럼 태조는 국가의 토대가 아직 자리잡지 않은 상황 속에서 쿠데타를 통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태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권의 확립이었다. 이에 그는 왕권의 강화를 통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통치에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처음에는 중원의 왕조와 외교관계 형성에 주력하였다.

17) 『契丹國志』 권1, 太祖大聖皇帝.

18) 『遼史』 「本紀」에서는 아보기가 907년에 황제로 즉위하였고, 916년에 다시 신하들이 존호를 청하자, 이를 수용하여 재차 황제에 오른다. 하지만 『遼史』 권63 「世表」에서는 아보기가 可汗으로 등극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나온다. 따라서 필자는 이 둘을 구별하여 907년은 可汗으로 즉위한 1차 즉위, 916년에는 왕권 위협 세력을 제압하고 새롭게 황제로 등극한 과정을 2차 즉위로 구별하여 보고자 한다.

19) 『遼史』 권73, 열전3, 耶律曷魯 “時制度未講, 國用未充, 扈從未備, 而諸弟刺葛等往往覬非望”.

[표 2] 거란이 후량에 파견한 사신횟수<sup>20)</sup>

년도	횟수	사행목적
907	2	賀登極使, 冊封奏請使
908	2	交聘, 冊封奏請使
909	1	交聘
911	2	交聘
912	1	致祭使

[표 3] 후량이 거란에 파견한 사신횟수

년도	횟수	사행목적
906	1	交聘
907	1	交聘
908	1	交聘
913	1	交聘
916	2	賀登極使, 交聘
917	1	交聘
920	1	交聘
923	1	交聘

위의 표를 보면 특히 태조는 907년과 908년에 빈번히 후량에 사신을 보내 책봉을 요구할 정도로 후량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거란의 대후량관계는 거란 건국 초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후량은 거란을 통해 하동의 이극용을 견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예상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C: 高頃이 (후당으로) 돌아가려하자 이때 阿保機(太祖)가 解里를 딸려 보내, 良馬 및 貂裘 및 朝霞錦로써 후량에 빙례를 행하고 封表稱臣하면서, 封冊을 구했다. (그러자) 後梁은 다시 公遠 및 司農卿 渾特에게 詔書와 상을 내려 보냈고 따로 글을 내렸는데, “만약 함께 병사를 내어 쫓을 멸망시킨 연후에 封冊하여 甥舅의 國으로 삼고, 또 子弟에게 삼백의 기병을 거느리고 수도로 들어가 시위케 하겠다” (중략) 渾特 등이 거란에 이르렀으나, 阿保機가 약속과 같이 할 수 없다 하자, 後梁 역시 봉책을 행하지 않았다.<sup>21)</sup>

사료 C에서 거란이 후량에 책봉을 요구하자, 후량은 쫓을 공멸한 이후에

20) [표 2]와 [표 3]은 모두 『遼史』와 『舊五代史』·『新五代史』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21) 『新五代史』 권72, 四夷附錄第一, 契丹.

책봉을 해줄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거란은 초반 왕권의 안정과 대외변화의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 후량에 적극적으로 사신을 보냈으나, 후량의 무리한 요구조건은 신생국인 거란으로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와는 달리 916년 이후에는 후량이 거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후량이 朱皐忠 사후 자식들의 紛亂과 반후량세력의 공격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이다. 916년에 이존욱이 河北諸州 일대를 모두 장악하면서, 후량은 점차 수세에 몰렸다.<sup>22)</sup> 따라서 후량은 916년 이후에 5차례에 걸쳐 거란에 사신을 보내 태조를 포섭하여 하동의 이존욱을 견제하고자 했을 것이다.

동시에 태조는 내부적 단결과 통합을 위해서 皇后族과 포섭하여 자기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태조는 4년(910) 7월에 后兄인 蕭敵魯를 北部宰相으로 삼았고, 이후로부터 적극적으로 후족을 요직에 기용하였다.<sup>23)</sup> 당시 후족은 回鶻 출신으로 일찍부터 거란사회에 진입하여 태조가 국가를 건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sup>24)</sup>

이와 더불어 태조는 자신의 친위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족 고유의 宮衛제도를 확립하였다.

太祖는 迭剌部에 의해 선양을 받아 本部를 五院과 六院으로 나누어 황족에게 통치하게 하니, 친위대가 모자라게 되었다. 이에 斡魯朵(ordo) 法을 세우고 州縣을 쪼개어 戶丁을 나누니 줄기를 강화하고 가지를 약하게 했다(중앙은 강하게 하고 주변을 약화시켰다). 후손들이 태조가 끼친 계책을 이어 받아 대대로 宮衛를 세웠다.<sup>25)</sup>

태조는 行營안에 腹心部를 세워 諸部에서 정예병 2천여 명을 뽑아 행영

22) 『舊五代史』권8, 梁書八, 末帝紀上, 貞明二年, “是歲, 河北諸州悉入於晉”.

23) 『遼史』권1, 太祖本紀上, 太祖四年 七月 戊子.

24) 王小甫, 2004, 「契丹建國與回鶻文化」, 『中國社會科學』 2004(04), 202쪽.

25) 『遼史』 권35, 營衛志中 “太祖以迭剌部受禪, 分本部爲五院六院, 統以皇族, 而親衛缺然. 乃立斡魯朵法, 裂戶縣, 割戶丁, 以強幹弱支. 詒謀嗣續, 世建宮衛”.

을 채우고, 자신의 심복에게 이를 관리토록 하였다. 이를 ‘斡魯朵(ordo)’라고 하여 제국의 주요 전략지에 배치하여 전시에 가장 먼저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태조와 후계자들은 여러 부족과 심지어 한족 출신의 군사를 뽑아서 개인 소속의 돌격부대와 황제의 근위병으로 조직하고 부족 엘리트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하였다.<sup>26)</sup>

그러나 왕권 확립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세력도 존재하였는데, 바로 태조의 동생들이었다. 수년간에 걸친 대규모 형제 반란 사건은 거란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였지만, 태조가 이를 진압하면서 내적단결과 중앙집권적인 체제정비 등 새로운 정치국면을 보이기 시작하였다.<sup>27)</sup>

태조는 916년에 신하들이 존호를 청하자 이를 받아들이면서 神冊으로 건원하고, 황제로 등극하였다.<sup>28)</sup> 2월에 장자인 耶律倍를 황태자로 세우면서 명실공이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게 되었다.<sup>29)</sup> 이는 국가의 제도가 정비되고, 왕권이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태조는 신책 5년(920)에 契丹大字를 만들어 반포하였고, 후에 回鶻文字 등을 바탕으로 契丹小字를 만들었다. 또한 신책 6년(921)에 소외받아 왔던 宗室을 南部宰相에 기용하여 府中の 불만을 잠재우려 하였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기용된 漢人들은 거란인들이 부족했던 실무행정 능력을 담당하고, 국가의 법과 여러 제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한 연휘는 태조가 처음에 국가를 세웠을 때 여러 일들을 시작하여 도읍과 궁전을 세우고 君臣과 名分을 바로잡았다. 또한 916년에 쫓아서 투항한 盧文進 또한 거란 발전에 큰 힘을 더하였다.<sup>30)</sup>

이처럼 태조는 왕권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의 제도를 바로 세우는 등 큰 힘을 기울였다. 특히 기존의 제도를

26) Thomas J.Barfield · 윤영인 역, 2009, 『위태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360쪽.

27) 金涓顯, 2004, 앞의 책, 26쪽.

28) 『遼史』권1, 太祖本紀上, 太祖神冊元年 二月 丙申.

29) 『遼史』권1, 太祖本紀上, 太祖神冊元年 三月 丙辰.

30) 『新五代史』 권48, 「盧文進」전에서, “自其奔契丹也, 數引契丹攻掠幽薊之間, 虜其人民, 教契丹以中國織紵工作無不備, 契丹由此益彊”.

정비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던 태조는 내부의 안정을 바탕으로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원정을 단행하였다.

### Ⅲ. 태조·태종대 대외관계와 그 추이

#### 1. 태조대 대외경략

당시 중원에서는 후량과 반후량을 중심으로 한 세력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반후량전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沙陀突厥 출신의 李存勗이다. 그는 後梁정권에 반기를 들고 주위의 세력을 포섭하였고, 후량과 이존욱의 갈등은 20년동안 지속되었다. 이에 태조는 후량·반후량간의 전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세력을 길렀고, 그 힘을 토대로 외연을 넓혀 동서로 영토 확장에 매진할 수 있었다.

먼저 태조는 서쪽으로의 진출을 꾀하였다. 태조는 神冊元年(916) 7월에 突厥·吐渾·党項 등을 정벌해 큰 승리를 거두었다. 태조는 여기에서 전리품으로 그 추장 및 15,000호를 포로로 잡았고, 鎧甲·兵仗·器服은 90여만, 寶貨 및 가축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획득하였다.<sup>31)</sup> 태조는 어느 정도 힘이 갖추어지자, 天贊三年(924) 6월에 皇后·皇太子·大元帥 및 宰相 등을 모아놓고 詔를 내려 친히 마치지 못한 2가지 일을 지적하였다.<sup>32)</sup> 이것은 그가 이루고자 했던 숙원 사업으로 바로 서방경략과 동방경략이었다. 먼저 서방경략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回鶻路 확보를 통해서 서방세력과 교류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전부터 실크로드를 제외하고 北庭-回鶻牙帳(古回鶻城)-거란의 上京을 연결하는 길과 回鶻牙帳-夏州-長安에 이르는 길을 回鶻路라고 불렀다. 이러한 回鶻路는 당 중엽이후 吐蕃의 河西진출을 통해 동서연결의 중심

31) 『遼史』 권1, 太祖本紀上, 太祖 神冊元年 七月 壬申.

32) 『遼史』 권2, 太祖本紀下, 太祖天贊三年, 六月 乙酉.

이 되었다.<sup>33)</sup> 그러나 吐蕃과 回鶻이 무너진 후 阻卜이 이곳에 산거하자, 거란은 이를 정벌하여 무역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당시 歸義軍이 실크로드의 관문인 沙州일대를 장악했는데, 沙州는 세계 각국의 산물이 모여드는 무역의 중심지였다.<sup>34)</sup> 뿐만 아니라 回鶻牙帳에서 伊州를 연결하는 교통로와 甘州까지 연결된 교통로가 존재했기 때문에, 태조에게 이러한 回鶻路의 확보는 큰 메리트로 다가왔을 것이다.

두 번째는 동쪽의 발해 정벌에 앞서 後顧의患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당시 天贊3년(924)에 장차 발해를 정벌하려 할 때 鐸臻이 태조에게 다음과 같이 諫하였다.

“陛下 발해를 먼저 공격하면, 西夏가 반드시 우리의 뒤를 공격할 것입니다. 청컨대 먼저 서쪽을 토벌해서, 後顧의 걱정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태조가 이를 따랐다.<sup>35)</sup>

여기서 西夏는 아직 건국되지 않았기 때문에 夏州일대에 거주하던 党項이다. 즉 발해를 공격하는 도중에 서방의 세력이 급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서쪽의 우환을 없애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시 당항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몇 개의 부족이 오르도스 일대와 장안과 하서를 연결하는 그 통로에 산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 부족은 河西에서 回鶻이 중국에 朝貢을 할 때 번번이 回鶻사신을 위협하였고, 그 사자와 물품을 빼앗아 다른 부족에게 팔아 우마로 바꾸기도 하였다.<sup>36)</sup> 이를 통해서 볼 때, 중국으로 가는

33) 長澤和俊, 1983, 「吐蕃の河西進出と東西交通」, 『シルク・ロード史研究』, 國書刊行會, 252~253쪽.

34) 당시 돈황의 무역은 남으로는 토번, 서로는 波斯와 印度 등에서 생산한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었다. 특히 실크로드 천산남로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于闐(호탄)과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甘州回鶻과 西州回鶻과도 무역이 진행되어 세계 각국의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판로이었다. (鄭炳林, 2003, 「晚唐五代敦煌貿易市場的外來商品輯考」, 『敦煌歸義軍史專題研究續編』, 蘭州大學出版社, 422쪽)

35) 『遼史』 권75, 列傳列傳5, 耶律鐸臻 “天贊三年, 將伐渤海, 鐸臻諫曰, 陛下先事渤海, 則西夏必躡吾後. 請先西討, 庶無後顧憂. 太祖從之”.

36) 『新五代史』 권74, 党項 “自河西回鶻朝貢中國, 道其部落, 輒邀劫之, 執其使者, 賣之佗族, 以易牛馬”.

사신뿐만 아니라 교역상인들 또한 이들의 표적이 될 수 있었다.<sup>37)</sup>



[그림 1] 924~925년에 걸친 契丹 太祖의 西征圖<sup>38)</sup>

태조 원정의 첫 번째 목표는 阻卜 정벌이었다. 당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阻卜은 漠北에 산거하고 있었는데, 天贊三年(924) 9월에 태조는 먼저 예전의 위구르 수도였던 古回鶻城에 이르러 정벌에 착수하였다. 태조는 일거에 阻卜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關邊可汗故碑<sup>39)</sup>에 契丹·突厥·漢字로 그 공적을 새겼다.<sup>40)</sup> 즉 태조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여 그 일대에 산거하고 있었던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후 오르콘강 일대를 장악했던 태조는 이어서 바로 10월에 北庭 일대인 浮圖城을 깨뜨리고, 그 일대의 諸部를 복속하였다. 11월에는 甘州回鶻 都督 畢離遏을 사로잡아, 甘州에 사신을 보내 그 주에게 타일렀다. 다음해 4월에 甘州回鶻 烏母主可汗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또한 따로 大元帥 堯骨에게 명해 党項을 정벌하게 하는 등 回鶻路에 위협이 되었던 세력들을 제거

37) 金在滿, 1974, 『契丹民族發展史의 研究』, 讀書新聞社出版局, 79쪽; 周偉洲, 2006, 『唐代党項』,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23쪽.

38) 長澤和俊, 1957, 앞의 논문, 73쪽 그림을 바탕으로 재구성.

39) 關邊可汗故碑는 毗伽可汗으로 추정된다.(松井等, 1915, 앞의 책, 301쪽) 毗伽可汗(在位 716~734)은 돌궐2제국 3대可汗으로, 내전으로 피폐한 돌궐을 중흥시키려고 노력하였다.

40) 『遼史』 권2, 太祖本紀下, 太祖 天贊三年 九月 甲子.

하고, 그해 9월에 대원정을 마치고 上京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서방경략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태조는 동쪽 발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거란은 동쪽으로 눈을 돌려, 그해 12월에 태조는 다음과 같이 詔를 내려 말하였다.

“所謂 2가지 일 중에 한 가지는 이미 마쳤으나, 오직 渤海가 대대로 원수로 아직 갚지 못했으니 어찌 마땅히 안주할 수 있겠는가!” 이에 친히 擧兵하여 渤海의 大譴誅을 정벌하였다.<sup>41)</sup>

태조는 詔書를 통해 발해정벌의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고, 바로 군대를 일으켜 창끝을 서에서 동으로 돌렸다. 당시 거란과 발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거란이 요동을 점령하면서 발해와 충돌이 잦아졌다. 天贊 3년(924) 5월에 거란이 薊州민을 遼州에 옮기자, 발해가 遼州刺史 長秀實을 죽이고 그 백성들을 거두어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sup>42)</sup> 또한 발해는 925년 女眞·回鶻·室韋 등을 부추겨 거란을 공격하게 하는 등 반거란 연대를 결성하여 거란을 견제하려고 하였다.<sup>43)</sup> 뿐만 아니라 발해는 태조와 적대관계였던 後唐이 새로운 중원의 패자로 등장하면서 후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sup>44)</sup> 따라서 거란은 후당과 발해와의 연대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에 태조는 발해 원정을 단행하고, 앞서 후당에 사신을 보내 혹시 모를 침입에 대비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sup>45)</sup> 당시 태조는 서방경략 때와 달리 皇后 및 皇太子도 정벌에 참여시켰다. 원정군은 먼저 거란과 가장 가까운 扶餘府를 포위하여 5일 만에 함락시켰다. 또한 거란은 발해의 최후 결사대 路相의 3만군을 맞아 阿古只의 활약으로 이를 격퇴하였다.<sup>46)</sup>

41) 『遼史』 권2, 太祖本紀下, 太祖天贊四年 十二月 乙亥 “詔曰, 所謂兩事, 一事已畢, 惟渤海世讎未雪, 豈宜安駐. 乃擧兵親征渤海大譴誅”.

42) 『遼史』 권2, 太祖本紀下, 太祖 天贊三年, 五月.

43) 日野開三郎, 1984, 앞의 책, 449~450쪽.

44) 발해와 후당과의 사신왕래를 정리한 李孝珩, 2007, 『발해 유민사 연구』, 혜안, 56쪽 표 참조.

45) 『資治通鑑』 권274, 明宗 天成元年 正月 “契丹主擊女眞及渤海, 恐唐乘虛襲之, 戊寅, 遣梅老鞋里來修好”.

路相군이 패하면서 발해군은 싸우지도 못하고 쉽게 무너졌고, 거란군은 발해의 수도 忽汗城까지 밀고 들어가 그 성을 포위하였다. 결국 渤海王 大諲譔은 태조에게 항복을 청하였다. 태조가 항복을 수락하자, 며칠 후에 대인선이 관료 300여인을 거느린 채 태조 앞에서 항복하였다.<sup>47)</sup> 거란이 발해 정벌을 시작한지 겨우 두 달 만에 발해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후속작업으로써 발해국을 東丹國으로 바꾸고, 皇太子 耶律倍를 人皇王으로 삼아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sup>48)</sup> 그러나 거란은 당시 발해의 수도와 扶餘府 일대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귀순하지 않은 곳에서는 반란이 빈번히 일어났고, 심지어 항복했던 大諲譔마저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태조는 반란세력들을 진압하였고, 大諲譔이 다시 항복하자 그를 거란의 皇都 가까이로 옮겼다.

이러한 태조 동서경략은 태조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발해를 멸망시키고 돌아오는 중에 죽었던 태조는 내부적 단결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 대외적 팽창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거란은 200여 년 통치의 근간을 마련하여 정복왕조로 나아갈 수 있었다.<sup>49)</sup>

## 2. 태종의 대중원관계

태조 사후에 황후였던 述律太后가 섭정하여 정권을 잡았다. 당시 황태자인 人皇王이 황제로 등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太后는 차남인 耶律德光을 총애하여 그를 황제로 삼고자 하였다. 결국 태종이 황제로 즉위하였고, 일찍부터 아버지 태조를 도와 군사적 역량과 태후의 권력을 바탕으로 주변을 포섭하는 등 왕권을 안정시켜 나갔다.

당시 남쪽의 後唐 또한 明宗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수습해가는 과정이

46) 『遼史』 권2, 太祖本紀下, 太祖 天顯元年, 正月 丙寅.

47) 『遼史』 권2, 太祖本紀下, 太祖 天顯元年, 正月 辛未.

48) 『遼史』 권2, 太祖本紀下, 太祖 天顯元年, 二月 丙午.

49) 陳述, 1986, 『契丹政治史稿』, 人民出版社, 109쪽.

었다. 후당의 수습과정을 틈타 928년에 후당의 義武軍節度使 王都가 반란을 일으키자 거란은 이를 지원하면서 대거 군대를 보내 남쪽을 공격하였다.<sup>50)</sup> 그러나 거란의 대패로 많은 군사를 잃었고, 楊隱 등 50여 명이 후당군에게 사로잡혔다. 이에 태종은 포로송환 문제로 후당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후당에 외교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뿐만 아니라 930년에 인황왕이 태종의 감시를 뚫고 거란을 탈출하여 후당으로 투항하였다.<sup>51)</sup> 당시 인황왕은 명종에게 거란의 印章과 지도를 바쳤다. 이에 후당 明宗은 그를 내지의 절도사에 봉하고 같이 투항한 사람들에게 受職을 해주는 등 후하게 대접하였다. 이는 명종이 인황왕과 태종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에게 사신을 보내 적극적 포섭한 결과 얻어낸 성과물이었다.

그러나 明宗이 933년에 병사하면서 후당에서 내분이 발생하였다. 閔帝 李從厚가 즉위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末帝 李從珂가 종후를 제거하고 황제가 되었다.<sup>52)</sup> 후당의 황위쟁탈전은 일단락되었지만, 從珂는 조정 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급속히 약화되었다. 또한 거란은 이전에 잡혀있던 포로송환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자, 후당 변경을 자주 공격하였다.

당시 거란은 하동방면으로 진출하여 河東節度使 石敬瑭과 자주 충돌하였다. 석경당은 거란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후당 조정에 병력과 군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從珂는 점차 석경당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張敬達을 파견하여 석경당이 가진 권한을 나누는 등 그를 견제하고자 하였다.<sup>53)</sup> 결국 석경당이 후당에 반기를 들고 거란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먼저 석경당은 936년 7월에 桑維翰에게 표문을 작성하게 하여 거란에 보냈고, 구원의 대가로 거란에 칭신하고 태종을 父로 섬기며 盧龍절도사 관할

50) 『遼史』 권3, 太宗本紀上, 太宗 天顯三年, 三月.

51) 『遼史』 권3, 太宗本紀上, 太宗 天顯五年, 十一月 戊寅.

52) 『舊五代史』 권46, 唐書二十二, 末帝上, 清泰元年, 四月 乙亥.

53) 『資治通鑑』 권279, 後唐 潞王 清泰二元, 七月 “乙巳, 以武寧節度使張敬達爲北面行營副總管, 將兵屯代州, 以分石敬瑭之權”.

의 道와 鴈門關 이북의 땅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석경당은 세 폐 30만을 바치기로 하였는데, 이에 태종은 仲秋에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석경당을 지원하였다. 이때 후당에서는 張敬達과 楊光遠을 파견하였지만, 거란군에게 대패하였다. 이후 태종은 파죽지세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 11월에 석경당을 大晉皇帝로 책봉하고 새롭게 후진을 세워주었다.

이처럼 거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후진은 윤11월에 후당을 대신하여 새로운 중원의 주인공이 되었다. 938년에 후진의 석경당은 사신을 파견하여 거란에 존호를 올렸다. 후진이 거란에 존호를 올리면서 태종은 그 날에 會同으로 건원하고 국호를 大遼로 바꾸었다.<sup>54)</sup> 그러나 『요사』에서는 거란의 大遼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해가 947년으로 즉, 거란이 후진을 멸망시키고 직접 중국을 지배하려고 하였던 시기였다.<sup>55)</sup>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구오대사』에서 다른 기사를 볼 수 있다.

契丹主(太宗)가 漢의 法服을 갖춰 입고 崇元殿에서 조회를 받았다. 이에 制를 내려 晉國을 大遼國으로 고쳐 삼았다.<sup>56)</sup>

위의 기사를 보면, 947년의 ‘大遼’ 국호의 사용은 後晉을 거란의 국가로 삼은 것으로 이때 처음 등장하는 용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종은 938년부터 大遼로의 전환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여 漢人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자 했을 것이다.<sup>57)</sup> 이러한 태종은 947년에 후진을 정복하면서 漢의 法服을 입고 조회를 받으며 사면령을 내리는 등, 기존의 중국황제가 취하는 모습을 답습하였다.

54) 『新五代史』 권72, 四夷附錄第一, 契丹上 “乃以幽州爲燕京, 改天顯十一年爲會同元年, 更其國號大遼, 置百官, 皆依中國, 參用中國之人”.

55) 『遼史』 권4, 太宗本紀下, 大同元年, 二月 丁巳 “建國號大遼, 大赦, 改元大同”.

56) 『舊五代史』 권99, 漢書一, 高祖紀下, 天福十二年 二月 丁巳. “契丹主具漢法服, 御崇元殿受朝, 制改晉國爲大遼國”.

57) 劉浦江, 2008, 『松漠之間 -遼金契丹女眞史研究』, 中華書局, 35쪽.

이후 석경당이 죽자 후진은 石重貴를 후진의 제2대 황제로 옹립하였다. 당시 후진 조정에서는 이전의 황제와 같이 거란에 신속하면서 국가의 안위를 이어 가야 한다는 주장과 거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다. 전자의 중심에 있었던 자는 桑維翰, 후자의 중심에 있었던 자는 景延廣이었다. 경연광이 조정내 권력을 독점하자 그를 중심으로 여론이 모아졌고, 결국 石重貴는 거란에 사신을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秋 7월 庚寅일에, 後晉이 金吾衛大將軍 梁言 및 判四方館事 朱崇節을 (거란에) 보내 와서 사례하였다. 書에서 ‘孫’이라 칭하고, ‘臣’으로 칭하지 않았다. 이에 (거란은) 客省使 喬榮을 보내 이것을 책망하였다. 그러자 景延廣이 답하기를 “先帝는 聖朝(거란)가 세웠지만, 지금의 황제는 後晉이 스스로 세웠습니다. 隣國이 되어 孫이라 칭할 수는 있지만, 奉表稱臣은 불가합니다.”라고 하였다.<sup>58)</sup>

태종은 이때부터 南伐의 뜻을 두어 후진을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태종은 937년부터 南唐과 사신왕래를 통해서 이들로부터 들어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sup>59)</sup> 당시 남당은 937년에 건국하여 稱帝建元하면서 後晉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南唐은 거란에 수차례에 걸쳐 蠟丸에 문서를 밀봉하여 바치는 등 거란을 통해 후진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태종은 속으로 남벌의 뜻을 품으면서도 겉으로는 이전처럼 後晉과 사신왕래를 계속 지속하였다.<sup>60)</sup>

그때 후진 조정에서 景延廣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陽光遠이 943년 12월

58) 『遼史』 권4, 太宗本紀下, 會同五年, 七月 癸亥 “晉遣金吾衛大將軍梁言, 判四方館事朱崇節來謝, 書稱孫, 不稱臣, 遣客省使喬榮讓之. 景延廣答曰, 先帝則聖朝所立, 今主則我國自册. 爲鄰爲孫則可, 奉表稱臣則不可”.

59) 彭艷芬은 거란과 남당의 관계에 주목하여 937년부터 957년까지 3시기로 구분하였다. 양국의 사절 왕래는 21년간 41차례로, 거란이 남당에 보낸 사신은 12차례, 남당이 거란에 보낸 사신은 29차례로 적극적으로 남당이 대거란 외교를 진행하였다.(彭艷芬, 2007, 「契丹遼朝對南唐的交結和利用探析」, 『北方文物』 3期, 86~88쪽)

60) 『資治通鑑』 권283, 齊王 天福八年 二月.

에 거란 태종에게 은밀히 사신을 보내 석중귀가 거란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거란의 幽州節度使 趙延壽 역시 후진공격을 권고했고, 이에 태종은 후진을 공격하기로 약속하였다. 944년 1월에 태종은 趙延壽 부자에게 5만의 군사를 주어 선봉으로 삼아 후진을 공격하였다.

석중귀는 사신을 보내 예전처럼 다시 우호관계를 유지하자고 했지만, 태종은 이를 거절하고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황하를 건너 楊光遠과 함께 후진을 공격하였다. 이때 후진의 완강한 저항으로 태종은 南京으로 물러나 楊光遠을 지원하였지만, 6월에 양광원 마저 후진에 항복하면서 후진정벌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태종은 기회를 엿보다가 946년 8월에 다시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후진을 공격하였다. 이전과 달리 태종이 후진군을 격파하자, 석중귀는 杜重威를 거란군 공격에 대한 총책임자로 삼았다. 그러나 두중위도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태종은 두중위에게 항복하면 후진 정복 후에 황제로 삼겠다고 유혹하였다. 이후 두중위가 휘하장수들을 이끌고 투항하자 대부분의 지역도 두중위를 따라 거란에 항복하였고, 태종은 손쉽게 후진의 수도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결국 후진은 거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12월에 거란 태종에게 사신을 보내 항복을 요청하면서 멸망하였다.

947년 1월에 태종은 석중귀를 만나서 그를 위로하고, 후진 신하들에게는 詔書를 내려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태종은 정복한 후진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국 의관으로 고쳐 입고 백관들이 문안 인사하는 것을 예전과 같게 하였다. 이어서 태종은 2월에 後晉을 大遼로 삼고, 大同으로 건원하였다.

하지만 아직 太原에는 劉知遠이 남아 있어 새롭게 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를 통해 유지원은 거란에 흡수되지 않은 세력들을 규합하였고, 더불어 태종의 失政으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에 태종은 날씨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구실을 들어 蕭翰을 汴州에 남겨 놓고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그리고 태종은 4월 丁丑일에 돌아가는 길목에서 죽었다. 태종

사후 거란은 혼란에 빠져 성종이 즉위하기까지 이전과는 달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sup>61)</sup> 비록 태종이 그토록 열망했던 중원정복은 순식간에 끝나 버렸지만, 거란이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후 대중원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 IV. 태종대 거란의 국제적 위상

태조·태종대에 이룩한 성과는 특히 대외관계사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앞에서 본것과 같이 태조는 2차례에 걸친 대원정을 통해 거란 동서쪽의 불안요소를 제거하였고, 태종은 태조의 원정을 바탕으로 대중원관계에 집중하였다. 또한 거란이 후진으로부터 존호를 받고 大遼제국을 건설하면서 거란에 대한 주변의 여러 국가들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 동아시아 지역 조공의 추이과정을 살펴보면, 거란의 대외적 팽창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변 세력들이 동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관계를 맺었던 세력들이 거란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거란쪽으로 움직인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당의 성쇠와도 관련이 있다.<sup>62)</sup> 따라서 이러한 추이 분석을 통해서 오대왕조와 비교하면서 거란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태조·태종대 거란의 서쪽에 위치했던 국가들과의 조공 횟수를 살펴보고, 오대국가와 비교하면서 그 양상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61) 島田正郎은 太宗사후, 世宗·穆宗 시기를 중쇠기로 파악하였다.(島田正郎, 1993, 『契丹國』, 東方書店, 18쪽)

62) 각주 10) 참고.

[표 4] 『요사』에 나타난 태조·태종대 조공의 서방 국가(지역)별 횟수

국가 시기	回鶻	阻卜	烏古	吐渾	党項	沙州	突厥	達靺	계
태조 901~926	4	1			1			1	6
태종 927~936	2	6	5	4	4		1		22
태종 937~947	11	8	4	4		4			31

[표 5] 『신오대사』·『구오대사』에 나타난 오대 조공한 서방 세력별 횟수

국가 시기	回鶻	吐渾	吐蕃	党項	達靺	沙州	突厥	于闐	계
後梁 907~923	3		2						5
後唐 923~936	13	10	10	13	8	5	3		62
後晉 936~947	6	5	1				1	1	14

[표 4]를 보면, 거란 태조와 태종대 조공국의 수와 조공 횟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조가 924년에 서방정략을 통해 이 지역의 국가들을 제압하였던 결과가 태종대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직접적인 정벌 대상이었던 党項·吐渾·阻卜·烏古<sup>63)</sup>의 세력들이 이전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태종이 후진 건국에 관여하고 거란이 대중원관계의 주도권을 차지하면서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이 점차 거란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和州回鶻은 태종에게 請婚을 주청하기도 하였다.<sup>64)</sup> 더불

63) 烏古는 『遼史』에서 于厥이라고도 한다. 이후에 거란이 敵烈과 함께 烏古를 지배하면서 烏古敵烈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烏古敵烈의 위치와 부족 연원에 관한 연구로는 律田左右吉, 1916, 「遼代烏古敵烈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2; 孟廣耀, 1994, 『北方民族史研究』 2, 中州古籍出版社, 243~254쪽 참조.

어 回鶻<sup>65)</sup>은 수직을 요청하거나 거란에 온 諸國사절단의 의례 과정을 보는 것을 청하는 등 거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표 5]를 보면 後唐대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後梁은 국초부터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후당을 세운 이존육과 대립하여 전쟁을 지속했기 때문에, 서쪽의 세력들은 혼란을 피해 조공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후당은 沙陀돌궐계로 北庭지역에서 성장하여 당말 그 일대를 석권 하면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존육은 어릴 적에 국난을 피해 達靺鞨으로 도망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도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당은 오대왕조 중에서 남쪽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넓은 판도를 자랑하였기 때문에 후량보다 조공 횟수가 많았을 것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거란은 回鶻路 확보를 통해 그 선상에 놓여 있었던 和州回鶻·阻卜·烏古 등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오대왕조들은 이전부터 주된 루트로서 사용되어 왔던 실크로드상에 놓여있던 세력 즉, 甘州回鶻·吐蕃·党項 등과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어서 태조·태종대 거란의 주변 및 동쪽에 위치했던 세력들과의 조공 횟수를 살펴보고, 그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6] 『요사』에 나타난 태조·태종대 조공의 동방 세력(지역별 횟수)

국가 시기	女眞	鐵驪	鼻骨德	室韋	達盧古	奚	渤海	계
태조 901~926	1	1					1	6

64) 『遼史』 권3, 太宗本紀下, 太宗 會同七年, 八月辛酉 “回鶻遣使請婚, 不許”.

65) 이 당시 回鶻은 크게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하나는 甘州를 중심으로 한 甘州回鶻이고, 다른 하나는 北庭지역을 중심으로 한 和州回鶻(西州回鶻)이다. 그러나 『遼史』와 『冊府元龜』는 각각을 구별하여 기록한 것도 많지만, 대부분 回鶻로 통칭해서 기록하였다. 그러나 거란은 국초부터 和州回鶻과 관계를 맺었고, 또한 和州回鶻이라는 이름이 몇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요사』에 나오는 回鶻은 和州回鶻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대왕조는 甘州回鶻에게 책봉을 해주고, 甘州근처 沙州에 위치하였던 歸義軍과 같이 오대왕조에 찾아온 경우가 많아서 주로 甘州回鶻과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태종 926~936	14	3	4		2			23
태종 937~947	17	7	7	5		1		37

[표 6]을 보면, 거란은 서쪽세력의 경향과 같이 태조대 동방경략의 결과로 태종대 조공국의 수와 그 횡수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室韋<sup>66)</sup>는 거란 주변에 있었던 세력으로 黑車子室韋를 제외하고 태조 때 활발한 정복활동의 결과 거의 복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奚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911년에 태조가 복속하면서 일부가 남쪽으로 내려가 연운16주 일대에 산거해서 주로 오대국가와 관계를 맺었지만, 그 이후에 완전히 거란에 복속되었다.

그리고 女眞<sup>67)</sup>·鐵驪·鼻骨德·達盧古 등은 모두 발해 멸망과 관련이 있다. 먼저 女眞은 거란의 동쪽 세력 중에서 가장 많은 조공횡수를 보인다. 이는 발해 멸망이후 거란이 東丹國을 세웠기 때문에 동쪽영역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당대에는 鐵利로 불렸던 鐵驪는 黑水靺鞨의 한 갈래였다. 발해가 강성했을 때에는 그 땅에 鐵利部를 두었고, 때때로 중국과 통했다.<sup>68)</sup> 그러나 태조가 발해를 멸망시키자 가장 먼저 거란에 조공을 바쳤고 그 이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鼻骨德은 生女眞部의 주요부락으로, 흑룡강·송화강의 합류처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sup>69)</sup>

이처럼 발해 고토에 존재했던 세력들은 발해멸망 이후에 거란의 영향력

66) 室韋는 당대부터 여러 부로 갈라져 있었다. 이러한 室韋에 관한 연구로는 張久和·북방사 연구팀 역, 2009, 『몽골인 그들은 어디서 왔나』, 소나무 참조. 『遼史』에 나오는 室韋로는 小黃·黃頭·臭泊·黑車子가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室韋로 통합해서 정리하였다.

67) 女眞은 『遼史』에서 女直으로, 이는 거란의 興宗의 휘가 耶律宗眞이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女直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여진으로 통칭한다. 또한 靺鞨 혹은 黑水는 오대시대부터 女眞으로 불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서 정리하였다.

68) 陳述의 1인, 2009, 『遼會要』, 上海古籍出版社, 927쪽.

69) 陳述의 1인, 2009, 앞의 책, 952쪽.

이 점차 커지면서 앞 다투어 거란에 조공을 바쳤다. 이러한 요인은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거란의 동단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래 많은 학자들은 929년에 태종이 人皇王을 견제하기 위해 동단국의 수도를 南京으로 옮기면서 東丹國이 방기되어 유명무실 해졌다고 주장한다.<sup>70)</sup> 특히 耶律羽之는 동단국의 재상으로 태종에게 상소를 올려 발해의 사람을 견제해야 하고, 동단국이 커가기 위해서 지금의 南京이 수도로써 적합하다고 하였다.<sup>71)</sup>

그러나 1992년에 耶律羽之의 묘비가 발견되면서 東丹國 천도 배경에는 인황왕의 의지가 강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묘비의 부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天顯4년(929) 己丑년에, 人皇王(耶律倍)이 詔를 내려 말씀하시길 “朕이 효로써 천하를 다스리는데, 걱정이 晨昏으로 깊어 盤庚을 본받고자 하오니, 卿은 마땅히 표를 올리시오” 하였다. 이에 公(耶律羽之)이 즉시 아뢰기를 “遼(遼陽)의 형세가 便하니, 가히 邦家를 삼을만 합니다”고 하니, 이로 진실로 황제의 마음과 합하여 (東丹國의) 基構가 창성하게 되었다.<sup>72)</sup>

여기서 人皇王이 본받고자 했던 盤庚은 기원전 14세기에 商나라의 왕으로 수도를 殷으로 옮기면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인물이다. 人皇王은 盤庚의 故事를 받들어 東丹國의 수도를 南京으로 옮겨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태종이 인황왕을 견제하고 수도 가까이 남경으로 옮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동단국의 번영을 위해서 천도했음을 알 수 있다.<sup>73)</sup>

70) 和田清, 1916, 『定安國について』, 『東洋學報』 6(1); 日野開三郎, 1990,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16, 三一書房; 金渭顯, 2004, 앞의 책.

71) 『遼史』 권75, 列傳列傳5, 耶律羽之.

72) 向南의 2인, 2010, 『耶律羽之之墓地』, 『遼代石刻文續編』, 遼寧人民出版社, “以天顯四年己丑歲, 人皇王乃下詔曰, 朕以孝理天下, 慮遠晨昏, 欲效盤庚, 卿宜進表. 公卽陳, 遼地形便, 可建邦家, 於是允協帝心, 爰興基構”.

73) 거란에 편입된 발해인은 비교적 높은 생산기술과 지식을 지녔으며 이러한 양질의 노동

이러한 거란의 성장 결과, 북쪽의 오대왕조 이외에도 남쪽에 위치했던 십국들과도 접촉하여 관계를 맺었다. 위에 언급했던 남당 외에도 吳越은 태조대부터 거란에 조공을 바치면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때때로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sup>74)</sup>

또한 후주가 건립되자 하동절도사 劉崇은 후주에 반기를 들고 하동 일대를 중심으로 北漢을 건립하였다. 北漢의 국력은 후주와 비교해 볼 때 1/10에 불과했지만, 거란으로부터 책봉조공관계를 이끌어내면서 송이 중국을 다시 통일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존속하여 송을 압박했다. 이렇게 북한이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은 거란의 군사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태조·태종대 활약을 통해 성장한 거란은 대중원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서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재편되면서 주변 세력들의 거란인식 또한 이전과는 달라졌고, 이를 통해서 점차 거란이 동아시아 중심으로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9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변화 양상과 그 속에서 건국된 거란의 왕권확립과정, 태조·태종대 대외관계의 추이와 이로 인해 나타난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주변 세력들이 거란에 조공한 것을 바탕으로 거란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검토하였다.

‘安史의 亂’으로 인하여 당은 내적으로 律令體制가 붕괴되었고, 조정에서는 환관의 발호와 당쟁이 격화되며 혼란에 빠졌다. 또한 각지에서 절도사들이 독립하여 중앙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며 藩鎮支配體制를 구축하였다. 결

력은 거란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羅永男, 2013, 『契丹의 異民族 支配政策과 渤海人の 存在樣態』,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74) 何勇强, 2001, 「論吳越國的海上外交」, 『杭州師範學院學報』 3期, 24쪽.

국 당은 ‘黃巢의 亂’을 계기로 朱全忠의 선양을 통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틈타 거란 태조는 점차 성장하여 907년에 부족을 통합하고 정권을 잡았다.

태조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왕권이 불안정했고, 왕권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내외적으로 힘을 쏟았다. 태조는 외적으로 後梁과 적극적으로 교섭을 하는 동시에, 내적으로 후족을 포섭하고 궁위제도를 확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태조는 형제들의 반란을 무마시키면서 916년에 황제로 즉위했다.

태조는 안정된 왕권 확립을 바탕으로 숙원사업이었던 대외원정을 추진하였다. 먼저 서쪽 정벌을 통해 回鶻路를 확보하고자 했다. 또 동쪽으로는 발해를 정벌하여 東丹國을 건설하고, 황태자를 人皇王으로 삼아 이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러한 태조의 역할은 태종대 대중원관계에 주도권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태종은 後唐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중원관계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후당은 明宗 사후 자식들의 내분으로 스스로 무너졌고, 이 틈을 타서 태종은 후당에게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였다. 이때 石敬瑭이 후당에 반기를 들고 도움을 요청하자, 태종은 그를 도와 후당을 공격하였다. 그 결과 태종은 후당과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후진 건국에 관여하면서 다시 대중원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태종은 석경당을 도운 대가로 燕雲16주와 歲幣를 받았고, 938년에는 후진이 태종에 尊號를 올리면서 국호를 大遼로 바꾸고 會同으로 건원하였다. 이처럼 태종은 적극적으로 중국문물을 받아 들였고, 漢族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원적 통치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석경당 사후 후진과 관계가 악화되자 태종은 중원을 지배하려 하였고, 3차례에 걸친 원정 끝에 후진을 멸망시키고 잠시나마 화북 일대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처럼 태조·태종대 대내외적인 성장의 결과 거란의 위상은 높아졌다. 즉 태조의 대외원정을 통해 서쪽 回鶻路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거란에 자

주 조공을 바쳤다. 거란의 동쪽 또한 태조가 발해를 멸망시킨 이후에 동단국을 세우면서 발해 고토내 영향력이 강해졌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태조·태종의 노력은 거란이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거란은 정복왕조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당송변혁의 중심에 있었던 오대시대에 두 황제의 역할은 중원왕조의 패권의식을 흔들기 시작했고, 새롭게 다윈적 국제질서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資治通鑑』, 『遼史』, 『契丹國志』, 『舊五代史』, 『新五代史』, 『冊府元龜』
- 金渭顯, 2004, 『契丹東方經略史研究』, 명지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4, 『契丹文化史論』, 景仁文化社
- 金在滿, 1974, 『契丹民族發展史의 研究』, 讀書新聞社出版局.
- 羅永男, 2013, 『契丹의 異民族 支配政策과 渤海人の 存在樣態』,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병국, 2006, 『거란제국사연구』, 한국학술정보
- 金毓黻·동북아역사재단 역, 2007, 『東北通史』 下, 동북아역사재단
- Thomas J.Barfield·윤영인 역, 2009, 『위태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 李孝珩, 2007, 『발해 유민사 연구』, 혜안
- 임대희 외 4인, 2005, 『세미나 수당오대사』, 서경문화사
- 金子修一, 2001, 『隋唐國際關係史研究の諸問題』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 島田正郎, 1952, 『遼代社會史研究』, 三和書房
- \_\_\_\_\_, 1979, 『遼朝官制の研究』, 創文社
- \_\_\_\_\_, 1993, 『契丹國』, 東方書店
- 日野開三郎, 1980,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2, 三一書房
- \_\_\_\_\_, 1990,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16, 三一書房
- 東京帝國大學文科學部, 1915,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 東京帝國大學文科學部
- \_\_\_\_\_, 1916,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2, 東京帝國大學文科學部
- \_\_\_\_\_, 1916,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3, 東京帝國大學文科學部
- 長澤和俊, 1983, 『シルク・ロード史研究』, 國書刊行會
- 早稻田大學文學部東洋史研究室編, 1984, 『中國正史の基礎的研究』, 早稻田大學出版部
- 孟廣耀, 1994, 『北方民族史研究』 2, 中州古籍出版社
- 楊家駱 編, 1973, 『遼史彙編』 5, 鼎文書局
- 劉浦江, 2008, 『松漠之間－遼金契丹女眞史研究』, 中華書局
- 鄭炳林, 2003, 『敦煌歸義軍史專題研究續編』, 蘭州大學出版社
- 周偉洲, 2006, 『唐代黨項』,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陳述, 1986, 『契丹政治史稿』, 人民出版社
- 陳述외 1인, 2009, 『遼會要』, 上海古籍出版社
- 向南외 2인, 2010, 『遼代石刻文續編』, 遼寧人民出版社
- 김성규, 2010, 「3개의 ‘트라이앵글’: 北宋時代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大勢와 그 특징

에 관한 試論』『역사학보』 205

廉景伊, 2008, 「唐 玄宗代 使臣派遣과 그 外交의 役割」 『中國史研究』 54

윤영인, 2007, 「10~13세기 동북아시아 多元的 國際秩序에서의 冊封과 盟約」 『東洋史學研究』 101

李永杓, 1986, 「五代와 契丹과의 關係」, 成均館大學校 석사학위논문

최재영, 2009, 「唐代 長安의 朝貢使節의 변화와 鴻臚寺의 기능」 『동북아역사논총』 24

최익주, 1978, 「요 태조 · 태종대의 한인관료」 『대구사학』 15

\_\_\_\_\_, 1981, 「요 초의 지배세력의 성격」 『대구사학』 19

小川裕人, 1938, 「遼室君主權の成立にする一考察」 『東洋史研究』 3·4

長澤和俊, 1957, 「遼の西北路經營について」 『史學雜誌』 66-8

和田清, 1916, 「定安國について」 『東洋學報』 6(1)

盧逮曾, 1954, 「五代十國對遼的外交」 『學術季刊』 3(1)

王小甫, 2004, 「契丹建國與回鶻文化」 『中國社會科學』 2004(04)

姚從吾, 1952, 「契丹漢化的分析」 『大陸雜誌』 4-4

任崇岳, 1984, 「略論遼朝與五代的關係」 『社會科學輯刊』 33期

彭艷芬, 2007, 「契丹遼朝對南唐의 交結和 利用探析」 『北方文物』 3期

彭艷芬 외 1인, 2007, 「五代時期契丹遼朝의 中原政策述論」 『赤峰學院學報』 28-1

何勇强, 2001, 「論吳越國의 海上外交」 『杭州師範學院學報』 3期

■ Abstract ■

The Growth of the Early Kitan  
and Status of International Standing  
— Focusing on the Liao Taizu · Liao Taizong Period —

Ryu, Vit-Na

This thesis studied a growth process of the Kitan through transition phase in the East Asia since the ninth century. Especially, The Kitan's Royal power establishment and the Liao Taizu · Liao Taizong age focused on. With the circumstance that other neighboring countries rendered tribute to the Kitan, The Kitan's Status of International Standing went over.

Liao Taizu had staged a coup and seized a political power. And he gave priority to The Kitan's Royal power establishment. Liao Taizu negotiated with Later Liang for external phases as well as he draw in empress and established Ordo in internal phases. He had quelled a quarrel among brothers and acceded to the throne in 916.

Since Royal power was stabilized, Liao Taizu made expedition on a large scale twice. First, Liao Taizu strove for uyghur route of acquisition through west territorial conquest. And then, he established Dongdan Kingdom through east territorial conquer. However, Liao Taizu dead on his way coming back to the capital after finish work. But, Liao Taizu's foreign expansion served as a momentum in that he taken the readership between the Kitan and Zhongyuan.

Since then, Liao Taizong attacked Later Tang because Shi Jingtang had risen a revolt against Later Tang. Consequently, Liao Taizong won the war with the Later Tang. And he was involved in a establishing Later Jin.

Liao Taizong taken the readership between the Kitan and Zhongyuan. He acquired the Sixteen Prefectures and 300,000 annual tributes. And he changed

the name of a country from the Kitan into Great Liao. In this, Liao Taizong adopted the Chinese culture and established the dualistic system of government. Liao Taizong tried to govern Zhongyuan after Shi Jingtang had died. After he had overthrown a Later Jin, he governed the Hebei in a while.

In this, the Kitan enhanced the nation's position in the Kitan Liao Taizu · Liao Taizong period. In other words, other countries with Uyghur route as the center in west rendered tribute to the Kitan. While The Kitan established the Dongdan Kingdom Balhae took influence. The Later Jin as well as Southern Tang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Kitan. The Wuyue even used to the Kitan's era name.

Liao Taizu · Liao Taizong's efforts were the driving force and established the dynasty of conquest. In the Five Dynasty with the Tang-Song Transition as the center, his roles overthrow a supremacy and laid a cornerstone of the Multistate system.